

회암사지 일자형 건물지에 관한 연구

한 지 만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외래연구원)

주제어 : 동아시아, 선종사원, 고려시대, 나옹, 회암사, 일자형 건물지, 衆寮, 梅檀林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고려 말의 入元유학승(유학기간: 1347-58) 懶翁惠勤(1320-76)은 檜巖寺 중창(1374-76)을 통하여, 宋·元대 선종사원의 가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또한 문헌사료와 발굴조사 자료의 검토를 통해, 회암사가 조선 중기에 양란으로 폐사되기 전까지, 나옹 중창 당시의 가람 구조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었음이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¹⁾.

南宋대(1127-1279)에 최성기를 구가했던 선종은, 元代(1271-1368)에 들어와서도 성세를 유지하였고, 元의 간섭을 받았던 고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바다 건너의 일본도 南宋 초기부터 선종의 왕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선종을 도입하고 있었다. 이처럼 선종이라는 불교 종파와 이에 동반된 문화가, 14세기 후반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하

는 동아시아 일대 종교문화의 공통분모였다는 점은, 이 시기에 조영된 각국의 선종사원·건축의 연구에 있어 주목할 가치가 있다.

한편, 발굴조사²⁾를 통해 전모가 밝혀진 회암사지는, 유구의 배치가 나옹이 중창한 가람의 모습을 적은 李穡(1328-96)의 『天寶山檜巖寺修造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유례가 없는 독특한 평면 형태와 내부 설비를 갖는 건물 유구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인해 학계와 세간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 유구가 바로, 6단지³⁾

2) 1980년대 초반에 지표조사(새한건축문화연구소, 『회암사지 현황조사-1차조사보고서-』, 양주군, 1985.), 1997년에 시굴조사(『회암사-시굴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단연구원, 2001.)가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발굴 조사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현재 사지 최후방의 7·8단지에 대한 보고서(『회암사II-7·8단지 발굴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단연구원, 2003.)가 발간되어 있는 상태이다.

3) 회암사는 종축방향인 남쪽으로 긴 계곡의 사면에 계단 모양으로 대지를 조성하여 전각을 배치하였는데, 전체 사역은 가장 낮은 남쪽에서부터 가장 높은 북쪽까지 총 8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전각의 위치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전각이 위치한 단의 위치를 병기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도 그 표기를 인용코자 한다. 불전과 승당, 그리고 『일자형 건물지』가 위치한 단은, 남쪽에서부터 여섯 번째 단, 즉 6단지에 해당한다.

* 이 논문은, 日韓文化交流基金 펠로십(2009년 10월-2010년 8월)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성과의 일부임.

1) 한지만·이상해, 『회암사의 연혁과 정청·방장지에 관한 복원적 연구』(『건축역사연구』61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년 12월), pp. 45-65.

의 불전지(普光殿址) 서편과 동편에 각각 위치한 僧堂 유구(서편)⁴⁾와 「日자형 건물지」(동편)이다(그림 1).

「日자형 건물지」란, 내부에 남북으로 두 곳의 중정을 갖는 건물지의 평면 형태에 연유하여 붙여진 명칭으로, 현재까지 이 유구가 이색의 기문에 적힌 전각들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또 당시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 문제의 원인의 한 가지로, 현재까지 회암사지의 건물지들에 대한 고찰이 국내의 관련 유구나 사료에만 국한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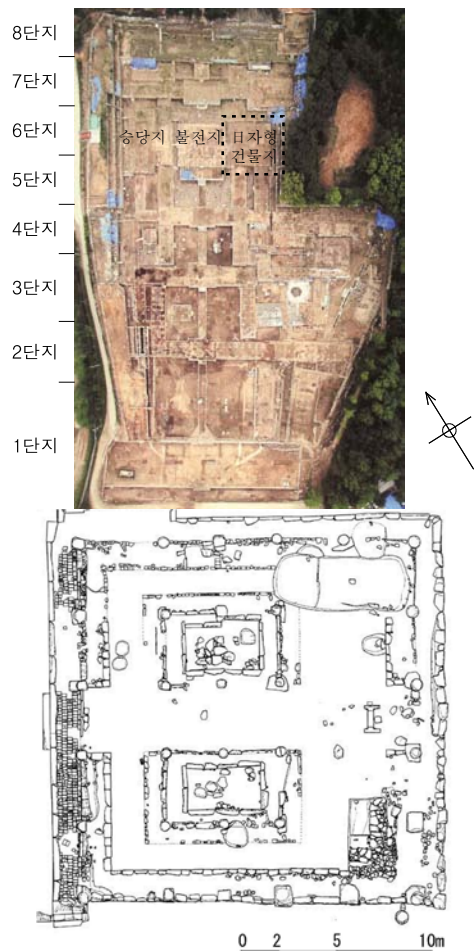
그러나 나옹이 회암사를 중창할 무렵의 중국이나 일본의 선종사원을 사례들로 눈을 돌려 보면, 이 「日자형 건물지」를 비롯한 몇몇 건축 유구들과, 이색의 기문에 등장하는 다소 생소한 전각의 명칭들이, 당시 동아시아의 선종사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갖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또한 반대로, 이러한 형태의 건물 유구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한국의 불교건축사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선종사원·건축의 비교고찰을 통하여, 회암사지의 「日자형 건물지」가 나옹 중창 당시의 가람에서 어떠한 기능을 한 전각이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 유구가 이색의 「天寶山檜巖寺修造記」에 기록된 전각 명칭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주변의 전각 배치에 대해서

도 새롭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현재까지 그 실상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 있지 않은 고려시대 사원건축의 일면을 밝히고, 나아가 발굴조사 이후의 회암사지 유적 정비에도 일부나마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日자형 건물지 유구와 「天寶山」檜巖寺修造記

2-1. 유구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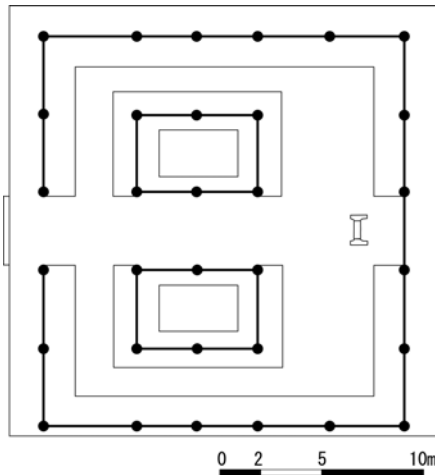


<그림 1> 日자형 건물지 발굴도면
(자료: 『양주 회암사지 3차발굴조사-현장설명회자료7-』)

4) 僧堂 유구에 대한 복원 연구로 韓志晩 「韓國における檜巖寺跡の僧堂遺構について—東アジア禪宗史から見て—」(『日本建築學會計畫系論文集』第602號, 日本建築學會, 東京, 2006年4月, pp. 219-224)가 있다.

5) 회암사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한지만·이상해, 위의 논문에 고찰되어 있다. 日자형 건물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2-2절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주불전인 보광전지 동편에 위치한 日字形 건물지는 사방 5칸 규모로, 내부에는 남쪽과 북쪽에 각각 1칸×2칸 규모의 중정이 만들어져 있다. 이와 더불어 건물지 내부에서 주목되는 것은, 남북 두 중정 사이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외벽에 연결하여 폭 약 120cm의 단을 설치했던 흔적이 있다는 점이다. 출입문의 흔적은 동서 양측의 중앙에서 확인되었는데, 동측 문 안쪽에 불단의 기초로 보이는 석재가 남아있는 것에 비추어, 이것과 마주한 서측의 문이 주출입구였음을 알 수 있으며, 건물은 불전을 향하여 서향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외부의 기단 상면에 방전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내부 바닥에도 방전이 깔려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



<그림 2> 日字形 건물지 복원평면도
(도면: 필자작성)

노출된 유구의 상태를 보면 폐사 이후에 인위적으로 교란된 흔적이 동북쪽 모서리 부분에서 일부 확인되지만, 건물 사용 중의 증개축 등과 같은 변화의 흔적이 없어⁶⁾, 나옹의 중창

6) 동남 모서리의 내부 바닥면 하부에서 벽체와 평행하게 깔린 석렬이 확인되어, 하부에 선대 유구의 존재가

이래로 기본적인 건물의 형태와 내부 시설은 큰 변화 없이 폐사 때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유구의 상황에 근거하여 평면 형태를 복원하면 그림2와 같다.

2-2. 「天寶山檜巖寺修造記」의 旃檀林과 선행연구

나옹이 회암사를 중창했을 당시, 불전의 동쪽에는 어떤 건물이 위치해 있었을까. 당시의 가람 모습을 기록한 「天寶山檜巖寺修造記」에는, 「普光殿之東·南曰旃檀林. 東雲集面西, 西雲集面東. 東雲集之東曰東把針面西, 西雲集之西曰西把針面東.」이라 하여, 불전 동쪽에 旃檀林이라는 것이 위치해 있다고 적고 있다. 위치상으로 보면, 이 旃檀林이 불전지 동편에서 출토된 日字形 건물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旃檀林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旃檀林이 곧 東雲集·西雲集과 동일한 건물이라는 의견⁷⁾, 旃檀林이 사원 동쪽 산지에 조성된 숲이며 그 안에 東雲集·西雲集과 東把針·西把針이 있었다는 의견⁸⁾, 그리고, 불전 앞마당의 동쪽에 旃檀(인도산 향나무)을 심어 조성한 화단이라는 견해⁹⁾ 등이 있다.

위의 의견들은 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행해진 연구의 성과

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양주 회암사지 3차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7-」, 2001. 4.), 석렬의 방향과 폭으로 보아 벽체에 연결하여 설치된 단의 기초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7) 최성봉, 「회암사의 연혁과 그 사지조사 -가람배치를 중심으로-」(『불교학보』9,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소, 1972. 10.), p. 186.

8) 김홍식, 「양주 회암사지의 전각 배치에 관한 연구」(『문화재』24호, 문화재관리국, 1991.), p. 7.

9) 허홍식, 「회암사」(『고려로 옮긴 인도의 등불』, 일조각, 1997.), p. 217.

들로, 먼저 구체적인 유구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겠다. 그리고, 旃檀林과 후속하는 東雲集·西雲集, 東把針·西把針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는 못하고 있으며, 旃檀林을 旃檀을 심은 숲으로 보는 견해도 단순히 자구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고 있을 뿐이어서 재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한편,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작성된 가람배치의 복원안¹⁰⁾을 보면, 출토된 건물지의 배치에 근거한 안이라는 점에서 이 전보다 정확도를 얻었다고 평가될 만하나, 旃檀林의 위치는 여전히 가람 동쪽의 산지로 추정되고 있다. 즉, 『天寶山檜巖寺修造記』에 기록된 旃檀林을 하나의 독립된 건축물로 보지 않고, 불전 혹은 가람의 동쪽 어딘가에 조성된 旃檀의 숲으로 보는 것이, 현재까지의 일관된 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旃檀林이 무엇이었는지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天寶山檜巖寺修造記』에 기록된 전각의 명칭¹¹⁾들이, 전각의 기능이나 형태와

10)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계획』, 2001., p. 217.

11) 『天寶山檜巖寺修造記』: ……普光殿五間面南, 殿之後說法殿五間, 又其後舍利殿一間, 又其後正廳三間, 廳之東西方丈二所各三楹, 東方丈之東羅漢殿三間, 西方丈之西大藏殿三間, 入室寮在東方丈之前面西, 侍者寮在西方丈之前面東, 說法殿之西曰祖師殿, 又其西曰首座寮, 說法殿之東曰影堂, 又其東曰書記寮, 皆面南, 影堂之南面西曰香火寮, 祖師殿之南面東曰知藏寮, 普光殿之東南曰旃檀林, 東雲集面西, 西雲集面東, 東雲集之東曰東把針面西, 西雲集之西曰西把針面東, 穿廊三間接西僧堂, 直普光殿, 正門三間, 門之東廊六間接東客室之南, 門之西悅衆寮七間, 折而北七間曰東寮, 正門之東面西五間東客室, 其西面東五間曰西客室, 悅衆寮之南曰觀音殿, 其西面東五間曰浴室, 副寺寮之東曰彌陀殿, 都寺寮五間面南, 其東曰庫樓, 其南曰心廊七間接彌陀殿, 其北曰醬庫十四間, 庫樓之東十二間, 庫有門, 從樓而東四間, 又折而北六間, 又折而西三間, 缺其西, 直正門少東曰鍾樓三間, 樓之南五間曰沙門, 樓之西面東曰接客廳, 樓之東北向知賓寮, 接客之南面東曰養老房, 知賓之東面西曰典座寮, 折而東七間曰香積殿, 殿之東庫樓之南曰園頭寮三間面西, 殿之南四間曰馬廄, 凡爲屋二百六十二間,

관련하여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명칭인지, 아니면 전각에 걸린 현판을 적은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天寶山檜巖寺修造記』에 적힌 전각의 명칭들을 보면, 穿廊, 東廊, 庫, 醬庫, 庫樓, 正門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현판을 걸지 않는 부속 건물이나 현판이 아닌 명칭이 일부 확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외에 불·보살전이나 법당을 비롯한 각종 요사나 전당 등 주요 전각의 명칭은 현판을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旃檀林 또한 불전의 동쪽에 위치한 전각의 현판일 가능성, 그리고 그 전각과 일자형 건물지와의 관련성도 생각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일반적으로 현판을 통해 전각의 기능이나 내부의 안치물을 가늠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들도 있는데, 이 旃檀林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본 절에서는 우선 『天寶山檜巖寺修造記』에 적힌 旃檀林이, 불전의 동쪽에 위치해 있던 전각의 현판이었을 가능성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하며, 이하에서 나옹의 회암사 중창 무렵의 중국과 일본의 선종사원 사례 및 관련 사료의 분석을 통해, 일자형 건물지의 정체, 그리고 旃檀林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단서를 찾고자 한다.

3. 중국과 일본의 선종사원과 衆寮

3-1. 宋·元대 선종사원의 衆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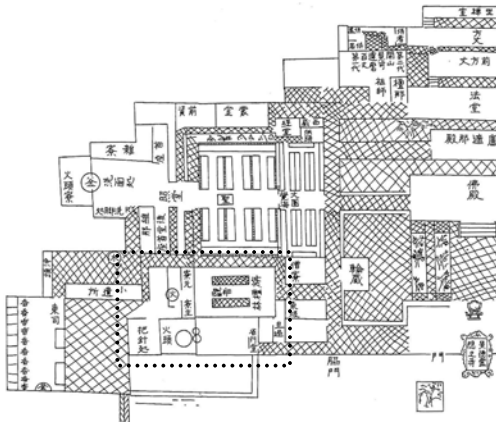
나옹이 회암사를 중창하기 전 유학을 통하여 경험했던 元대 선종사원은, 宋代에 완성된 선종사원을 계승한 것으로, 주요 전각의 기능과 형태 및 가람배치는 宋代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¹²⁾. 한편, 회암사지의 일자형 건

凡佛躬十五尺者七, 觀音十尺, ……

12) 그 중에서, 宋·元대 선종사원의 가람 구성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 볼 수 있는 것은, 南宋대까지

물지 및 旃檀林과 관련하여, 먼저 13세기 후반에 일본의 入宋 유학승이 南宋의 주요 선종사원의 모습을 기록한 자료로 알려진 『五山十刹圖』¹³⁾(大乘寺本) 말미의 「諸山額集」·「衆寮額」편을 보면, 明州(浙江省 寧波) 阿育王寺(南宋 五山 第五位)의 衆寮에 旃檀林이라는 현판명이 보인다. 그리고 역시 『五山十刹圖』에 수록된 가람배치도를 보면, 臨安(浙江省 杭州) 靈隱寺(南宋 五山 第二位)의 배치도에, 佛殿 서측의 僧堂(大圓覺海) 남쪽에 旃檀林이라고 적힌 건물이 배치되어 있을 것을 볼 수 있다(그림3).

이 건물은 내부에 남과 북 두 곳에 각각 중



<그림3> 『五山十刹圖』(東福寺本) 靈隱寺
가람배치도(부분)의 旃檀林
(자료: 關口欣也『五山と禪院』)

중심축선상의 法堂과 方丈 사이에 독립된 건물로 존재해 있었던 寢堂이라고 하는 주지 講禮(講說과 行禮)를 위한 전각이, 元대에 들어와서 점차 사라지게 되고, 그 기능이 법당과 방장으로 흡수되어 간 것을 들 수 있다. 韓志晩, 「宋元時代의 禪宗伽藍における 寢堂について」, 『駒澤大學禪研究所年報』第19號, 東京, 2008년 3월, pp. 49-65.

13) 『五山十刹圖』(大乘寺本), 『大宋諸山圖』(東福寺本), 『大唐五山諸堂圖』(常高寺本), 『禪藍圖』(妙心寺 龍華院本), 『支那緒利圖』(永平寺本) 등의 제본이 알려져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大乘寺本과 東福寺本, 및 關口欣也가 트레이싱한 東福寺本 가람배치도를 사용하여 있으며, 명칭은 편의상 『五山十刹圖』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정이 만들어져 있고, 안쪽 중앙에 觀音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관음상이 안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뒤쪽으로 부속 공간이 이어져 있다. 뒤에서 상론하겠으나, 이 旃檀林 역시 중료에 해당하는 건물로, 남송대 선종사원에는 旃檀林(혹은 旃檀林)이 특히 중료라는 전각의 현판으로 자주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하에서 宋·元대 선종사원에서 중료라고 하는 전각이 어떠한 기능을 하였고, 사원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선행연구와 『五山十刹圖』, 清規, 語錄 등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료는 수행승들이 僧堂에서의 좌선, 식사(粥·齋), 취침 이외의 시간에, 경전이나 祖師들의 어록을 읽거나 차를 마시는 전각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부 중앙에는 聖像이라 하여 觀音像이 안치된다¹⁴⁾.

이에 더하여 중료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 먼저 北宋 1103년(崇寧2) 宗曠이 찬술한 『禪苑清規』(第一卷「掛搭」條)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新到는 寮(衆寮)로 돌아가, 寮主를 찾아 「新到가 相看합니다」라고 말한다. …(中略)… 이에 寮主는 戒臘의 높고 낮음을 자세히 살펴, 參頭(新到의 대표자) 이하를 같은 법식(一例)으로 看讀床案에 掛搭시킨다. (新到歸寮, 尋寮主云<新到相看>. …(中略)…於是寮主看詳戒臘高低, 指參頭以下一例, 就看讀床案掛搭. <>: 割註. 이하 동일)

위의 대목은 新到, 즉 새로 들어온 수행승이 승당에 이어 중료에서 掛搭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깨달이란, 새로 들어온 승려가 주

14) 橫山秀哉「衆寮と學寮」(『禪の建築』, 彰國社, 東京, 1967.), pp. 191-200.

지의 허락을 받아 승당의 床에 法臘(수계 이후의 수행 햇수)에 따라 자리를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¹⁵⁾, 각각의 자리는 單 혹은 單位라 한다¹⁶⁾. 그런데 위의 청구 내용을 보면, 승당뿐만 아니라 중료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폐답이 행해져, 각 수행승 마다 單位(看讀床案)가 정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승당과는 달리 중료에는 별도의 獨寮를 가진 頭首나 知事와 같은 役僧들의 單位는 마련되지 않는다.

그리고, 「看讀床案」이라 적고 있는 것처럼, 중료의 單位에는 경전이나 어록의 看讀을 위한 책상이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선종사원에서 좌선수행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승당에서는 일체의 看經이 엄격히 금지되어있었고, 看經堂과 중료에서 간경이 행해졌다. 그러나 중료에서의 간경은 南宋대를 거치면서 더욱 활성화되어¹⁷⁾, 뒤이은 元대에는 東

陽德輝가 1338년(至元4)에 찬술한 『勅修百丈清規』(卷第四「知藏」條)에 「今各僧看經多就衆寮, 而藏殿無設几案」이라 적고 있듯이, 간경의 기능이 완전히 중료로 옮겨져 있었다.

이것 외에도, 看話禪의 대성자로 유명한 大慧宗杲(1089-1163)의 어록인 『大慧普覺禪師語錄』(卷第三十「答鼓山逮長老」條)¹⁸⁾에는, 「작년에 보내주신 어록 한 책을 받았습니니다. 잠시라도 임제의 중지를 잃지 않도록 중료로 보내어 수행승들과 함께 읽었습니다(去年送得一冊語錄來. 造次顛沛, 不失臨濟宗旨. 今送在衆寮中, 與衲子輩看).」라고 하였고, 또한 元대의 1316년(延祐3)에 『景德傳燈錄』을 중간할 때 첨부된 「重刊景德傳燈錄狀」에도 중간된 책이 강남 兩浙지방의 저명한 선종사원의 중료로 보내지고 있어¹⁹⁾, 宋·元대 선종사원의 중료에 경전과 더불어 조사들의 어록이 안장되고, 수행승들에 의해 읽혀지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중료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능의 다른 한 가지에, 楞嚴會라는 法會가 있다. 北宋의 『禪苑清規』에는 楞嚴會라는 범회가 보이지 않으나, 南宋대의 『叢林校定清規總要』(1274년, 惟勉 찬술)와 元대의 『禪林備用清規』(1311년, 忒威 찬술)에 의하면, 夏安居가 시작되기 전날(結夏, 음력 4월12일)과 끝나기 전날(解夏, 음력 7월 12일) 밤에, 주지 이하의 모든 승려들

15) 駒澤大學內新版禪學大辭典編纂所『新版禪學大辭典』, 大修館書店, 東京, 2003(1978).

16) 宋·元대 선종사원의 승당은, 일반의 수행승이 좌선, 식사, 취침을 하는 內堂과, 知事나 頭首 등과 같은 役僧들이 좌선과 식사를 하는 外堂으로 구성되며, 내당 중앙에는 聖僧(일반적으로 文殊菩薩像)이 안치된다. 승려들은 승당 내부에 설치된 긴 평상 모양의 床 위에서 좌선과 식사, 취침을 한다. 床에서 각 승려에게 할당되는 單位의 폭은 2.5~3尺 정도이며, 깊이는 내당의 경우 성인이 누울 수 있는 7尺 정도이다. 單位 전면의 폭 1尺 부분은 식사 때 鉢을 놓고, 취침 때에는 袈裟를 벗어 두고, 머리를 두는 곳으로 항상 정갈히 해야 하는 곳의 의미로 三淨이라 하며, 單位의 후면에는 의복과 이불(被) 등을 두는 函櫃가 설치되어 있다. 單位 위에는 계절에 따라 蓆(여름)과 氈(겨울)을 번갈아 깔았다. 그러나, 役僧들은 별도로 마련된 寮舍(獨寮 혹은 單寮)에서 취침하기 때문에, 외당의 單位는 깊이가 짧고, 函櫃도 설치되지 않는다. 회암사지의 승당 유구는 床이 온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승당과 차별성을 갖는다. 이상, 橫山秀哉, 「僧堂と禪堂」(위의 책), pp. 174-190.; 韓志晚, 위의 논문(2006.) 참조.

17) 『禪苑清規』第四卷「藏主」條에는 藏殿에 부속된 看經堂에서 행하는 看經의 作法이 상세히 적혀 있어, 간경당과 중료 두 곳에서 간경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南宋대에는 惟勉이 1274년(咸淳10)에 찬술한 『叢林校定清規總要』에 藏殿 혹은 看經堂에서의 간경 작법에 대한 기술이 없고, 같은 청구의 卷下에 수록된 「無量壽禪

節日用小清規」(1209년 初刊)에는 「歸寮問訊. …(中略)…若有茶就座. …(中略)…茶罷或看經. 不得長展經<謂二面也>. 不得手托經寮中行. 不得垂經帶. 不得出聲. 不得背靠板頭看經」과 같이, 중료에서 간경할 때 범해서는 안될 금칙을 상세히 적고 있어, 중료에서의 간경이 일반화 된 것으로도 짐작이 되지만, 『五山十刹圖』 수록된 天童寺(浙江省 寧波, 南宋五山 第三位) 가람배치도에는 經藏과 함께 看經堂의 존재도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

18) 『大慧普覺禪師語錄』은 南宋 1172년(乾道8)에 大慧宗杲의 제자 蘊開이 편찬하였다.

19) 『景德傳燈錄』「重刊景德傳燈錄狀」(元, 1316): 隨卽印. 捨三百部於兩浙, 安業名山方丈·蒙堂·衆寮各一部.

이 중료에 모여 안거의 無事圓成을 기원하며楞嚴咒²⁰⁾를 독송하는 능엄회가 행해지고 있었다²¹⁾. 그리고 하안거 기간 중에는 매일 불전에서 능엄회가 행해졌고²²⁾, 중료에서는 頭首僧이 수행승들에게 차를 공양하는 의식이 행해졌었다²³⁾. 능엄회 이외에, 南宋대의 曹洞宗 계통의 사원에서는, 매일 초하루와 보름에 중료에서 주지가 普說²⁴⁾을 행하였다²⁵⁾.

20) 정식 명칭은, 「大佛頂萬行首楞嚴陀羅尼」 혹은 「大佛頂萬行首楞嚴神咒」이며, 『首楞嚴經』(全十卷)의 第七卷에 수록된 呪文이다. 駒澤大學內新版禪學大辭典編纂所『新版禪學大辭典』.

21) 『叢林校定清規總要』卷上「衆寮解結」條: 四月十二, 或十三日. …(中略)… 至晚. 安排照牌. 先就寮內, 特爲夏中執瓶盞兄弟喫湯. 請寮長相伴. 次排大眾照牌. 鳴寮前板衆集. 寮主·副寮行禮. …(中略)… 湯罷, 打退座板, 維那謝湯. 寮元使出寮門右邊, 接住持·知事·頭首外寮人入却. 建楞嚴會, 寮主學經回向而散. 解夏禮同. 이것과 『禪林備用清規』卷之三「衆寮楞嚴」條 및 『勅修百丈清規』卷第七「衆寮結解特爲衆湯」條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衆寮에서의 結解일은 음력 4월12日(結夏)과 7월12日(解夏)로 명기되어 있다. 한편 北宋대에는 結夏(4월 14일)와 解夏(7월 14일)의 밤에, 가람의 수호신을 안치한 土地堂에 모여 안거의 無事圓成을 기원하는 念誦을 하였다. 『禪苑清規』第二卷「結夏」條: 四月十四日. 齋後, 掛念誦牌. 至晚, 知事豫備香花法事. 於土地前集衆念誦; 第二卷「解夏」條: 七月十四日晚. 念誦·煎湯·來日陸堂·人事寮舍·煎點并同結夏之儀.

22) 『叢林校定清規總要』卷下「建歇楞嚴會」條: 仍隔日, 詣方丈請齋飯. 齋罷, 挂牌預提點大佛殿香燭. 至期 …(中略)… 住持至佛前燒香一炷, 退身問訊, 展拜跪爐. 知客度爐, 侍者捧香合, 住持上香. 維那白佛云<…할주 생략…>. 次宣疏畢, 知客接爐, 住持起身, 楞嚴頭喝楞嚴會上, 衆和畢. 楞嚴頭即唱爾時世尊云云. 舉呢喝摩訶了, 維那再回向云<…할주 생략…>大眾無拜.

23) 『叢林校定清規總要』卷上「頭首衆寮點江湖茶」條: 頭首夏中衆寮點茶. 當日粥罷, 令茶頭行者請寮元·寮主, 并挂牌. 寮元·寮主, 於觀音前分手坐. 點茶人設位於寮門內上手, 與寮元對面而坐. 齋退, 行者即鳴寮前版. 點茶人先往寮門外下手, 合掌立揖. 衆入畢, 燒香三爐, 轉中間爐前上手, 問訊寮元. 次轉下手, 問訊寮主. 復轉上下間爐前問訊. 仍歸中央問訊立. 寮元起身揖, 請點茶人坐. 喫茶畢, 點茶人起身, 歸中下手立. 寮元出爐前, 謝茶送出. 여기서 江湖茶란, 하안거 중에 마시는 차의 뜻으로, 중국에서 江西와 湖南의 수행승들이 한데 모여서 안거를 시작하였다는 것이 유래하여 안거를 江湖會라고도 불렀다. 駒澤大學內新版禪學大辭典編纂所『新版禪學大辭典』.

24) 普說이란 주지가 法堂의 法座에 올라 행하는 정구의 설법과는 별도로 행하는 설법으로, 南宋대에 들어와

그리고 중료는 수행승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전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예로, 먼저 수행승들이 의복과 바리때(鉢)를 비롯한 개인 물품들을 중료에 보관하였고²⁶⁾, 중료의 관리를 담당하는 寮主와 寮首座 등의 역승들은 중료에 상주하면서 수행승들의 물품을 간수하였다²⁷⁾. 그리고 南宋대 부터는, 이전까지 非時食, 즉 二時食(아침의 粥과 점심의 齋) 이외의 식사라 하여 금지되어 왔던 저녁 식사가, 藥石이라 하여 중료에서 행해지게 되었다²⁸⁾. 또한, 중료의 후면에 바느질(把針)을 비롯해 이발이나 세탁 등을 할 수 있는 부속공간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도²⁹⁾, 중료가 수행

臨濟宗의 大慧宗昊에 의해 널리 행해지게 되었다. 원래는 三八일에 寢堂에서 행해졌으나, 元대에 들어와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해졌고, 법당에서도 행해지게 되었다. 宋·元대 선종사원의 보살 및 침당에 대해서는 韓志晚, 앞의 논문(2008.) 참조.

25) 『叢林校定清規總要』卷下「上堂·普說·小參」條: 洞下尊宿, 每於朔望, 升堂罷, 就寮寮, 當中設位, 爲兄弟普說. 여기서 「洞下尊宿」이란, 洞下, 즉 曹洞宗의 개조 洞山良介(807-869)의 법을 계승한 尊宿(住持)을 뜻한다.

26) 『禪苑清規』第一卷「裝包」條: 掛搭了, 如堂中有函櫃, 即收行李安函櫃中鎖之. 笠子·拄杖歸寮. 如堂中無函櫃, 收行李赴寮. 人事了, 聽寮主·首座指授處所, 相看畢掛針. 安被於僧堂內, 茶筒文字置寮中案上(패답이 끝나고, 僧堂 안에 函櫃가 있으면, 行李(수행의 경구나 행장을 적은 것)를 함께 넣고 잠근다. 갓과 지팡이는 중료로 가져간다. 만약 승당에 함께가 없으면, 行李를 거두어 중료로 간다. 인사를 마치고 寮主와 寮首座가 장소를 지정해주는 바를 듣고, 인사한 다음 바리때를 건다. 이불(被)은 승당 안에 둔다. 茶筒과 책(文字)은 중료 안의 책상 위에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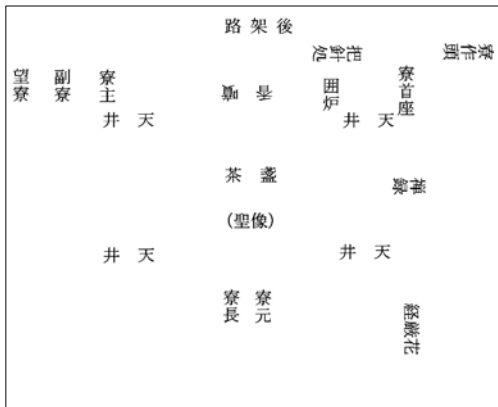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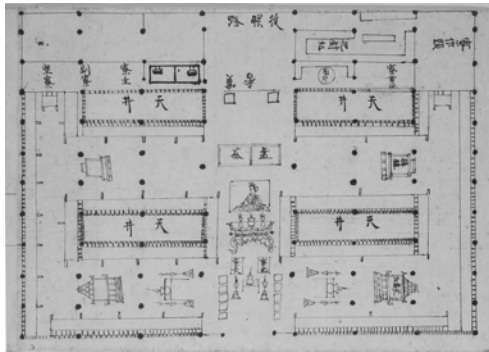
27) 『禪苑清規』第四卷「寮主·寮首座」條: 寮中首座, …(中略)… 同寮主於寮中止宿, 看守衆僧衣鉢.

28) 『叢林校定清規總要』卷下「坐禪·坐堂·放參」條: 晚下坐堂, 至鳴放參鐘, 和南展單, 歸寮喫粥; 『禪林備用清規』卷之二「坐參」條: 放參粥熟, 堂司行者覆首座放參. …(中略)… 大眾和南問訊下床, 各出半單, 歸寮喫粥.

29) 『禪苑清規』第十卷「百丈規頌頌」條: 諸寮舍, 不得高聲讀誦經典并閑雜文字. 自己案分禪策文字, 常蓋齊整. 或把針·剃頭·剪紙·合藥, 或曬鞋靴·觸衣·浴具, 皆於屋後階處, 仍逐時打疊. 밑줄친 부분은 「혹, 把針(바느질)·剃頭(이발)·剪紙·合藥(약 조제)을 하거나, 혹은 鞋靴(신)·觸衣(속옷)·浴具를 말릴 때, 모두 건물 뒤쪽의 후미진 곳에서

승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전각으로 기능한 것을 잘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료의 기능은 『五山十刹圖』에 실린 중료 평면도(그림 4)의 내용과 잘 부합되고 있다.



<그림 4> 『五山十刹圖』(大乘寺本) 衆寮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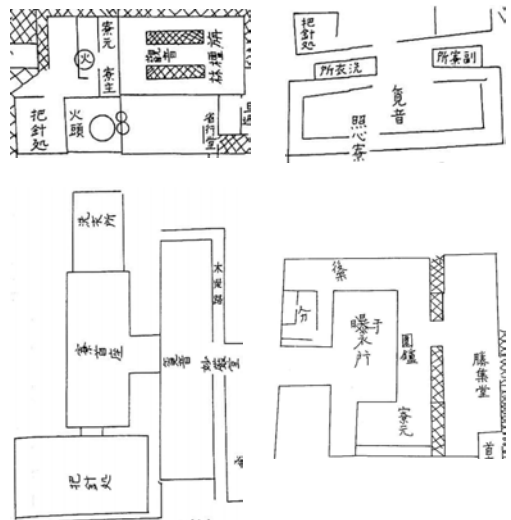
이 그림의 중료는 사원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으나, 먼저 평면 구성 면에서 볼 때, 정면 7칸, 측면 8칸의 주공간과, 그 후면에 부속된 측면 3칸의 부속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공간에는 중앙에 안치된 聖像 좌우에 전후로 각각 중정(天井)이 만들어져 있고, 이 중정과 외벽의 창에 접하여 긴 床이 설치되어 있다. 중정들은 무엇보다 경전·어록의 看讀을 위한 채광장치 역할이 크다. 그리고 床 위의 안쪽에

할 것이며, 항상 정리정돈 해야 한다.」는 뜻이다.

건축역사연구 제19권 2호 통권69호 2010년 4월

는 창에 접하여 看讀용 책상과 수납의 기능을 겸하는 經櫃가 설치되어 있다. 또, 聖像 좌우의 통로에는 각각 「化嚴經」(華嚴經, 진방)과 「禪錄」(祖師語錄, 후방)을 두는 藏經臺가 놓여져 있다.

후면의 부속공간은 오른쪽에서부터 寮作頭, 寮首座, 寮主, 副寮, 望寮 등 중료의 관리를 맡은 역승이 상주하는 방과 把針處 등으로 구성되며, 후면 중앙에는 「後架路」, 즉 세면장(後架)으로 통하는 문이 나온다. 또한, 『五山十刹圖』에 수록된 靈隱寺, 天童寺, 萬年寺의 가람배치도에, 중앙에 觀音像(聖像)이 안치된 주공간의 후면으로, 把針處와 더불어 洗衣所, 干衣所 등으로 구성된 보조공간이 갖추어진 중료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그림 5).



<그림 5> 『五山十刹圖』(東福寺本) 가람배치도의 중료 부분: 靈隱寺「旃檀林」(左上), 天童寺「照心寮」(右上)·「妙嚴堂」(左下), 萬年寺「勝集堂」(右下)
(자료: 關口欣也『五山と禪院』)

한편, 가람배치의 측면에서도 중료의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五山十刹圖』의 가람배

지도에 국한되기는 하나, 중료는 불전 서쪽의 승당과 인접하여 배치되는 공통점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元대의 1330년(至順1)에 창건된 선종사원인 大龍翔集慶寺³⁰⁾에서도 확인된다(그림6). 따라서 전체 배치를 놓고 볼 때, 宋·元대 선종사원에서 가람의 서쪽편은 대규모의 승당과 중료를 중심으로 하는 수행승들의 수행 및 생활 영역으로 성격지워 진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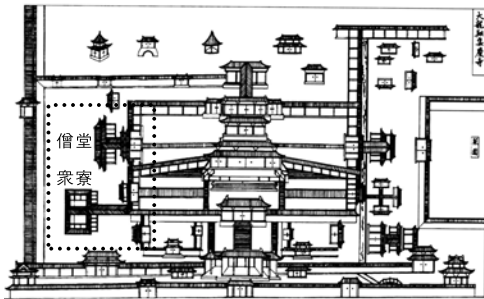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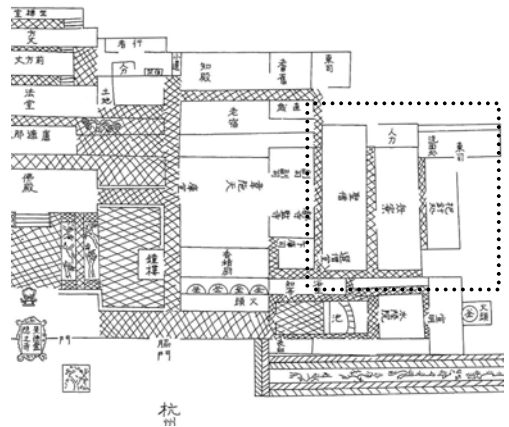


그림 6. 大龍翔集慶寺圖(『至正金陵新志』수록)
(자료: 『中國古代建築史』第四卷: 元·明建築)

이러한 가람 서편의 성격은, 반대로 가람 동편의 구성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五山十刹圖』의 靈隱寺 가람배치도를 예로 들어 보면, 가람 동편의 「庫堂」 뒤쪽(동편)에 「聖僧」상이 안치된 「選僧堂」과 「衆寮」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다시 중료 후면으로 「把針處」가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7). 먼저 庫堂은 수행승의 식사나 佛前에 올리는 공양물을 조리하는 주방(香積廚), 주지를 보좌하여 사원의 경영을 담당하는 知事僧들의 寮, 그리고 부속 창고 등으로 구성된 복합건축물로, 흔히 庫院으로 불렸다³¹⁾.

30) 大龍翔集慶寺의 창건 과정 및 가람 구성에 대해서는 한지만·이상해, 위의 논문, pp. 56-58. 참조.

31) 南宋대 선종사원의 庫院에 대해서는 永井規男, 「中世五山における庫院とその變容」(『建築史學』第38號, 建築史學會, 東京, 2002년3월), pp. 2-32.에 상세히 고찰되어



<그림 7> 『五山十刹圖』(東福寺本) 靈隱寺
가람배치도의 選僧堂·衆寮 부분
(자료: 關口欣也『五山と禪院』)

그리고 選僧堂과 衆寮의 구성은, 형식상으로는 가람 서편의 僧堂·衆寮와 같은 구성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곳은 아직 정식 승려가 되지 않은 行者³²⁾들이 수행·생활하는 영역이다. 행자들은 승려가 되기 위해 필요한 수행과 더불어, 知事와 頭首 및 그 이하의 각종 役僧(小頭首) 밑에 배속되어 사원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잡역을 수행하였고, 이들의 지도는 知事僧이 담당하였다. 選僧堂이란, 僧堂을 정식의 승려가 成佛하기 위하여 좌선수행하는 도장이라는 뜻으로 選佛堂이라 부르는 것에 대하여, 행자가 승려가 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당우라는 뜻이며, 흔히 行者堂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僧堂·衆寮와 마찬가지로, 行者堂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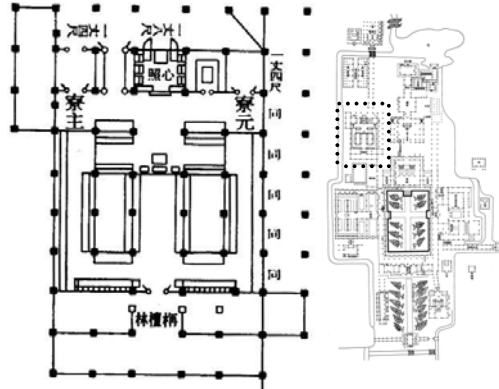
32) 宋대에는 出家(童行)과 得度(沙彌)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있어, 불문에 드는 자는 먼저 童行부터 시작했다. 동행은 行者로도 불렸고, 沙彌가 되기 위해 필요한 수행과 함께, 사원의 잡역을 담당하여, 方丈行者, 客頭行者, 堂司行者, 監作行者 등으로 불렸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度牒을 얻어(得度) 사미가 되고, 사미는 구족계를 받아 大僧이 되는데, 사미 단계부터 승려로 인정받았다. 鎌田茂雄, 『中國佛教史』(岩波書店, 東京, 2006(1978).), pp. 283-284.; 西尾賢隆, 『中國近世における國家と佛教』(思文閣出版, 京都, 2006.), pp. 320-340.

더하여 衆寮(行者寮)와 把針處까지 갖추어 지는 것 또한 선종가람의 한 특징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구성은 靈隱寺 이외에, 『五山十刹圖』에 수록된 天童寺와 萬年寺의 가람배치도에서도 공통으로 확인된다. 즉, 天童寺에는 가람 동편의 庫院 후방(동쪽)에 「選僧堂」과 「衆寮」(行者寮)가, 또 萬年寺에는 역시 가람 동편의 庫院 남쪽에 「行者堂」과 「法公寮」(行者寮)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가람의 동쪽 부분은 庫院과, 행자당·중료(행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말하자면 사원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寺務의 영역으로 성격지워 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반대로, 승당과 중료가 중심을 이루는 가람의 서쪽 부분이 수행 영역이라는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2. 중세 일본의 선종사원과 중료: 建長寺 梅檀林

南宋에서 건너온(1246년) 임제종의 고승 蘭溪道隆(1213-78)이 1249년(建長1)에 창건한(완성은 1276년) 鎌倉 建長寺는, 宋대의 완비된 선종가람이 일본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효시로 알려져 있다³³⁾. 이미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建長寺指圖」는 일본의 중세 선종사원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로, 이 자료에 그려진 가람의 모습은 창건 이래 1315년(正和4)에 있었던 가람의 두 번째 소실 이후, 재건 공사가 진행중이던 1331년(元弘1)의 상황이다³⁴⁾. 「建長寺指圖」를 보면 가람 서편의 승당(大徹堂) 후방에 「梅檀林」이라고 적힌 건물에 있는데, 이것이 중료에 해당하며, 梅檀林은 중료에 걸린 현판명이다. 이 중료는 가람



<그림 8> 「建長寺指圖」의 衆寮(梅檀林) 부분
(자료: 關口欣也 『五山と禪院』)

재건이 진행 중이던 1326년(嘉曆1)에 元에서 건너온 清出正澄(1274-1339)이, 이듬해에 建長寺 주지에 취임하여 건립한 것으로, 그의 비문에 의하면 杭州 靈隱寺 중료(旃檀林)의 規制를 따라 지었다고 한다³⁵⁾.

건축 구성을 보면, 우선 주공간의 후면에 부속 공간이 붙어 있는 형식이다. 전면 주공간의 정면 중앙에 난 梅檀林이라는 현판이 걸린 문을 들어서면, 좌우의 두 중정과 외벽에 접하여 單이 길게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것(床)을 볼 수 있다. 중앙 통로 안쪽에는 聖像을 안치한 龕室과, 그 전면에 공양물을 올리는 탁자로 보이는 것이 놓여있다.

후면의 부속 공간을 보면 좌우의 끝에 중료의 관리를 맡은 役僧인 寮主와 寮元이 거처하는 방이 있고, 중앙에 「心照」라고 적힌 방이 있다. 이 「心照」은 「照心」의 오기로 보이는데 照心이란, 부처나 조사의 가르침(經·論·語錄)

35) 『續群書類從』第九輯下「傳部」卷第二百三十「清拙大鑑禪師塔銘」: 大元泰定丙寅(1326)八月至博多。明年正月上京。關東使來, 迎居建長。三月十二日入寺。檀信衆以大國禪林所宜行事, 審舉行之。師開堂告香普說。新造衆寮, 規模如靈隱者。또한 『扶桑五山記』에 의하면, 「衆寮虹梁銘…(中略)… 嘉曆<丁卯>十二月十六日鼎建 …(中略)… 住山正澄題」이라 하여, 1327년(丁卯·嘉曆2)에 正澄이 衆寮의 梁銘을 적었다고 한다.

33) 關口欣也 『五山と禪院』(小學館, 東京, 1991.), pp. 150-153.

34) 關口欣也 『建長寺指圖』(『神奈川縣文化財圖鑑-建造物篇』, 神奈川縣教育委員會, 横浜, 1971.), p. 185.

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照心) 성찰한다는 의미³⁶⁾로 선종에서 널리 사용되는 말이다.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이 방은 수행승들이 중료에서 읽을 經典이나 語錄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 판단된다³⁷⁾. 그리고 이 부속 공간의 왼쪽에 붙어 있는 세 칸 규모의 공간은, 수행승들이 바느질(把針)이나 세탁, 이발 등을 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建長寺指圖』에 그려진 중료는, 梅檀林이라는 현판의 명칭, 평면구성, 가람배치상의 위치의 측면에서, 중국의 宋·元대 선종사원의 중료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宋·元대 선종사원 및 그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성립된 일본의 중세 선종사원의 중료는, 좌선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승당에 대하여 경전과 어록 등을 읽으며 수행하는 당우로, 그 외에 범회나 수행승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였다. 내부에는 중앙에 성상(관음상)을 안치하고, 주위에는 외벽에 접하여 길게 연결된 床을 설치되어 있었다. 床 위에는 각 수행승마다 자리(單位)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각 單位에는 책상과 수납의 기능을 겸하는 經櫃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간경을 위한 채광장치로 건물 내부에 중정을 만드는 것과, 건물 후면에 바느질과 세탁 등을 하는 把針處를 구성하는 것도, 중료를 특징짓는 중요한 건축 요소로 들 수 있다. 또한, 승당과 더불어 가람의 서쪽에 배치되어 수행의 중심 영역을 이루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중료의 현판명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旃檀林(혹은 梅檀林)은, 자구 자체

의 뜻은 향나무 숲이지만, 불교에서 청정한 총림의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말로³⁸⁾, 여기서는 부처와 조사들이 남긴 가르침을 참구하며 정진하는 청정한 수행승들을 향나무에 빚대어, 이들이 모여 수행·생활하는 곳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4. 회암사지 일자형 건물지의 해석

다시 회암사지의 일자형 건물지로 돌아와서 보면, 평면 구성의 측면에서, 내부에 중정을 구성한 점, 이 중정과 외벽에 접하여 길게 연결된 단이 설치되어 있는 점, 그리고 중앙 통로 안쪽에 불상을 안치했던 흔적이 있는 점 등은, 앞에서 고찰했던 중국의 宋·元대 및 일본의 중세 선종사원의 중료와 일치하는 특징들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 일자형 건물지는 나옹이 중창한 회암사의 중료 유구로 판단된다. 동시에 유구의 위치로 봤을 때, 『天寶山檜巖寺修造記』에 기록된 『普光殿之東少南曰旃檀林』의 旃檀林은 바로 불전인 보광전 동쪽에 위치한 중료의 현판명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문장에 나오는 東·西雲集과 東·西把針 역시, 이 중료, 즉 旃檀林과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 그중에서도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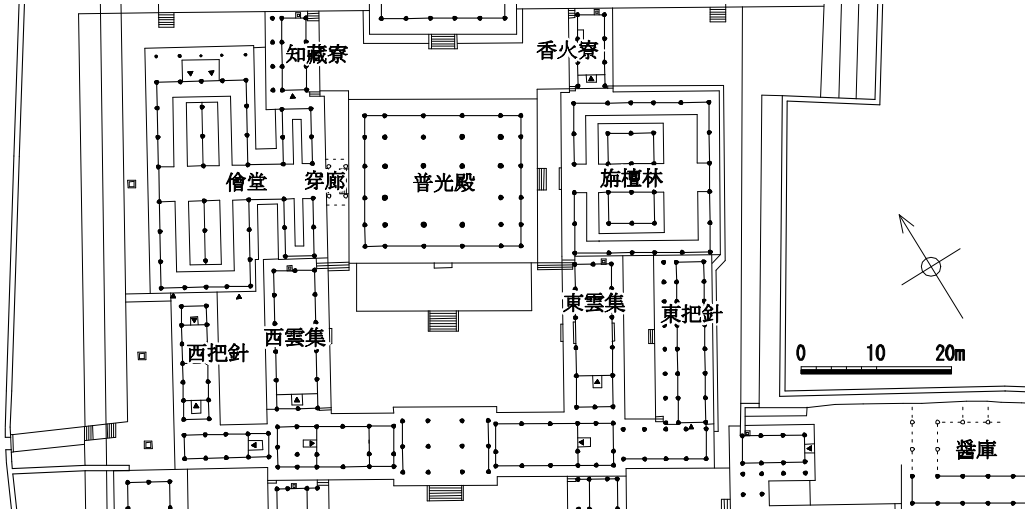
<그림 9> 회암사지 5단지의 추정 東·西雲集, 東·西把針 건물지

(자료: 『회암사지 8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27-』, 2006.)

36) 駒澤大學內新版禪學大辭典編纂所『新版禪學大辭典』.

37) 『五山十刹圖』의 天童寺 가람배치도를 보면, 天童寺에는 두 채의 중료가 그려져 있는데, 그 중 하나에 『照心寮』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그림 5). 이 照心寮라는 현판에는 중료가 수행승들이 經典·語錄을 읽으며 수행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38) 駒澤大學內新版禪學大辭典編纂所『新版禪學大辭典』.



<그림 10> 회암사지 5·6단지 부분의 나옹 중창 당시 추정 배치도
(도면: 필자 작성. ▲: 아궁이)

히 把針은, 바느질을 비롯한 각종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던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동·서운집과 동·서과침의 위치관계이다. 기문에 의하면 동운집과 서운집이 동쪽과 서쪽에서 마주 서고, 다시 그 바깥으로 동과침과 서과침이 각각 서향과 동향으로 위치해 있다고 하여³⁹⁾, 결과적으로는 중심축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두 채의 건물이 나란히 배치되는 모양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문의 내용과 발굴 유구를 대조해보면, 불전과 중료 유구가 위치한 6단지의 아래쪽, 즉 5단지에 동서로 나란히 배치된 네 채의 건물 구성이 기문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어(그림 9), 이들 건물지가 각각 동·서운집과 동·서과침에 해당한다고 추정된다.

이 건물지들을 살펴보면, 먼저 추정 동·서운집 유구는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동일한 칸

구성을 갖는다. 추정 동과침 유구는 정면이 7칸, 측면은 서측 정면에 개방된 반칸의 퇴칸을 둔 1칸 반으로 되어 있으며, 추정 서과침 유구는 정면 6칸, 측면 1칸이다. 그리고 네 건물지 모두에서 온돌 시설이 확인되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정식의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단정을 내리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추정 서과침 유구의 남·북 두 끝간에 설치된 아궁이가 부뚜막이 없는 난방 전용의 함실 아궁이로 되어있는 점⁴⁰⁾, 그리고 추정 동과침 유구의 북쪽 두 칸에서 선대의 온돌 유구가 확인된 점⁴¹⁾ 등에 비추어, 적어도 추정 동·서

39) 이 부분의 기문은 앞서 제시한 바 있으나, 편의상 여기에 다시 적어 두기로 한다. 普光殿之東南曰施檀林. 東雲集面西, 西雲集面東. 東雲集之東曰東把針面西, 西雲集之西曰西把針面東.

40) 『회암사Ⅱ - 7·8단지 발굴조사보고서-』(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2003.)에 의하면, 회암사지의 온돌 유구에서, 원래의 함실아궁이가 후대에 부뚜막아궁이로 개조된 예들이 다수 확인 된다. 이 중에서 초기의 함실 아궁이가, 고려말에 나옹이 중창할 당시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7단지의 건물지 중에서는 侍者寮지와 首座寮址가 그러하고, 入室寮址에서는 함실아궁이가 발굴되었으며, 8단지의 동·서 방장지도 원래의 함실아궁이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부뚜막아궁이로 개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지만, 앞의 논문(2008.), p. 52.

41)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양주 회암사지 5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13-』, 2002., p. 20.

파침에는 나옹이 중창했을 당시부터 온돌이 설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로 남는 것이 동·서운집의 정채 및 이들과 동·서파침과의 관계이다. 먼저, 『雲集』에 의미를 보면, 선종에서는 수행의 경지가 높은 스승을 찾아 각지를 유력하는 수행승을 흔히 雲水라 부르며, 雲集이란 이 수행승(行脚僧)들이 사방에서 구름과 같이 모려든다는 뜻이다⁴²⁾. 그래서 선종사원의 승당이나 중료, 혹은 행각승이 주지로부터 승당 및 중료에 패담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기다리며 머무는 且過寮 등과 같이, 수행승들이 모여 수행·생활하는 전각의 현판에 雲 또는 雲水라는 글자가 자주 사용된다⁴³⁾.

그런데 회암사의 추정 동·서운집 유구는, 이들과 쌍을 이루어 나란히 배치된 파침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승당이나 단과료 보다는, 중료의 기능을 했던 전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⁴⁴⁾, 단과료의 목적으로 지어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동·서 두 파침 중에서, 동파침이 정식의 중료인 전단림에 부속된 보조 공간의 역할을 하였고, 동운집에는 중료의 관리를 담당하는 역승들이 기거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 근거하여, 고려말에 나옹이 회암사를 중창했을 당시의 전단림과 운집, 파침이 위치한 5·6단지 일대의 배치를 복원해 보면, 위의 그림 10과 같다.

이와 같이 회암사 중료의 공간 구성이나, 전단림이라는 현판명, 그리고 파침의 존재의 측

면에서 보면, 나옹이 유학을 통하여 몸소 체험했던 중국 선종사원의 가람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의도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가람배치의 측면에서 보면, 중료가 불전의 동쪽에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중국이나 일본의 선종사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회암사의 입지 여건과 더불어, 나옹의 회암사 조영이 초창이 아니라 기존 사원의 중창⁴⁵⁾이었다는 점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먼저, 지금의 회암사지를 보면, 남북방향으로 형성된 계곡을 성토하여 세장한 터를 계단 모양으로 조성한 후, 계곡 방향에 맞추어 중심축을 정하여 전각들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입지 여건과 터의 조성 방식은, 나옹이 중창하기 이전의 회암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나옹 역시 기존의 터를 상당 부분 이용하면서 가람을 중창하였을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건물의 배치 상황을 보면, 특히 5단지부터 그 위쪽으로 건물들의 남북간 간격이 매우 좁은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기존에 조성된 터를 이용하면서 새롭게 전각들을 확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전 서측에 불전에 버금가는 규모의 승당과 중료를 함께 배치하기에는 터가 너무 협소하였기 때문에, 중료의 위치를 불전의 동쪽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5단지 이북 지역은 불전, 법당, 방장, 승당, 중료 등으로 구성된 승려들의 수행

42) 駒澤大學內新版禪學大辭典編纂所『新版禪學大辭典』.

43) 『五山十刹圖』『諸山額集』에 의하면, 南宋 天童寺 僧堂의 현판명이 雲堂이었고, 且過寮에는 雲水라는 현판명이 보인다.

44) 참고로, 『五山十刹圖』『諸山額集』을 보면 小淨慈寺 중료의 현판명이 「集雲」이었고, 天童寺에는 각각 「照心寮」와 「妙嚴堂」의 현판명을 가진 두 중료가 있었으며, 이는 天童寺 가람배치도에서도 확인된다. 그림5 참조.

45) 나옹은 1358년(恭愍王 7)에 元에서 귀국한 후, 1370년에 처음으로 회암사의 주지에 임명된 바 있고, 2년 뒤인 1372년에는 스승 指空의 부도를 건립하였으며, 1374년에 재차 회암사 주지에 임명되어 가람 중창에 착수했다. 이 사이 고려는 1359년과 1361년의 두 차례에 걸쳐 紅巾賊의 침입을 받았는데, 이 때 회암사도 병화의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나옹의 회암사 중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이상해, 위의 논문, p. 48. 참조.

과 생활을 위한 영역으로 설정되며, 이 남쪽의 1단지에서 4단지까지는 사원 경역을 담당하는 지사승들의 요사인 都寺寮, 副寺寮, 典座寮와 공양을 조리하는 香積殿 및 庫 등으로 구성되는 庫院 영역과, 知賓寮, 接客廳, 客室 등으로 이루어지는 寺務 및 세속 檀越 관련 시설들이 주로 배치되는 양상을 보인다⁴⁶⁾.

이러한 배치 양상은, 불전을 중심으로 승당과 고원이 서쪽과 동쪽에서 대칭을 이루어 배치되며, 승당에 인접하여 중료를 배치하고, 고원에 인접하여 행자당과 중료(행자료)배치하여, 가람의 서쪽과 동쪽 부분이 각각 승려들의 수행 및 생활 영역과 寺務의 영역으로 구성하는, 당시 중국 혹은 일본의 선종사원과 크게 다른 특성이다.

5. 결론

이상의 고찰 내용을 토대로, 회암사지의 보광전지 동쪽에서 발굴되어 日자형 건물지로 명명되어 왔던 유구는, 고려 말에 나옹이 중창한 회암사의 가람 상황을 기록한 이색의 「天寶山檜巖寺修造記」에 나오는 전단림을 현판명으로 갖는 중료의 유구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료 남쪽의 5단지에 위치한 네 동의 건물지는, 각각 이색의 기문에 적힌 동·서운집과 동·서과침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 동·서운집은 중료 혹은 단과료의 기능을 했던 전각이었고, 동·서과침은 이들과 중료(전단림)에 부속되어 승려들의 각종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공간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단림이라는 회암사 중료의 현판명과 더불어 건물의 평면 구성은, 중국의 宋·元대 및 일본의 중세 선종사원의 중료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이를 통해 나옹이 회암사를 중창

하는 과정에서 入元 유학에서 경험했던 중국 선종사원의 가람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나옹이 중창한 회암사 중료의 모델이 되었던 宋·元대 선종사원의 중료는, 좌선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승당에 대하여 경전과 어록 등을 읽으며 수행하는 당우로, 그 외에 능엄회나 보살 같은 법회나 수행승들의 일상생활이 행해지는 곳이기도 하였다. 내부에 설치된 床 위에는 각 수행승마다 자리(單位)가 지정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聖像(觀音像)이 안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건축적으로는 간경을 위한 채광장치로 내부에 중정을 만든 것과, 건물 후면에 바느질과 세탁 등을 위한 把針處를 구성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중료는 승당과 더불어 가람의 서쪽에 배치되어 수행 영역을 이루고 있었고, 반대편인 가람 동쪽 부분은 고원과 행자당·중료(행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寺務 영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중료는, 宋·元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성립된 일본의 중세 선종사원에서도 확인이 된다.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나옹이 중창한 회암사의 중료는 불전의 동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북으로 세장한 계곡부에 조성된 기존의 사원을 토대로 가람을 중창하는 과정에서, 불전 서쪽에 대규모의 승당과 중료를 인접하여 지을 수 있는 터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회암사의 가람배치는 승려들의 수행·생활 영역과 寺務 영역이 각각 북쪽과 남쪽으로 구분되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중국이나 일본의 선종사원과 크게 차이나는, 회암사 가람배치의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다.

46) 이것과 관련하여 가람배치 전반에 대한 고찰과 해석은 추후의 논고에서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1. 허홍식, 『고려로 옮긴 인도의 등불』, 1판, 일조각, 1997.
 2. 崔法慧, 『高麗板禪苑清規譯註』,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2(2001).
 3. 새한건축문화연구소, 『회암사지 현황조사-1차조사보고서-』, 양주군, 1985.
 4.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회암사 I -시굴조사보고서-』, 2001.
 5.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계획』, 2001.
 6.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회암사 II -7·8단지 발굴조사보고서-』, 2003.
 7.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양주 회암사지 3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7-』, 2001. 4.
 8.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양주 회암사지 4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11-』, 2001. 11.
 9.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양주 회암사지 5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13-』, 2002.
 10. 최성봉, 『회암사의 연혁과 그 사지 조사-가람배치를 중심으로-』, 『불교학보』9,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소, 1972. 10., p.p. 159-p.p.201.
 11. 김홍식, 『양주 회암사지의 전각배치에 대한 연구』, 『문화재』24호, 문화재관리국, 1991.
 12. 최성봉, 『회암사지의 조사연구 -가람배치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58.
 13. 한지만·이상해, 『회암사지의 연혁과 정청·방장지에 관한 복원적 연구』, 『건축역사연구』61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 12.
 14. 『景德傳燈錄』
 15. 『禪苑清規』
 16. 『叢林校定清規總要』
 17. 『禪林備用清規』
 18. 『勅修百丈清規』
 19. 『至正金陵新志』(『宋元方志叢刊』6, 中華書局, 北京, 1990.)
 20. 張十慶, 『五山十刹圖與南宋江南禪寺』, 東南大學出版社, 南京, 2000.
 21. 『中國古代建築史』第四卷: 元·明建築, 中國建築工業出版社, 北京, 2001.
 22. 『五山十刹圖』(大乘寺本)
 23. 『大宋諸山圖』(東福寺本)
 24. 『扶桑五山記』
 25. 『續群書類從』
 26. 駒澤大學內新版禪學大辭典編纂所『新版禪學大辭典』, 大修館書店, 東京, 2003(1978).
 27. 鎌田茂雄, 『中國佛教史』, 岩波書店, 東京, 2006(1978).
 28. 橫山秀哉, 『禪の建築』, 彰國社, 東京, 1967.
 29. 關口欣也, 『五山と禪院』, 小學館, 東京, 1991.
 30. 鏡島元隆·佐藤達玄·小坂機融, 『譯註禪苑清規』, 曹洞宗宗務廳, 東京, 1992(1972).
 31. 永井規男, 『中世五山における庫院とその変容』, 『建築史學』第38號, 建築史學會, 東京, 2002. 3.
- 접수(2010. 2. 14)
수정(1차: 2010. 4. 22)
게재확정(2010. 4. 29)

A Study on the Ruins of 日Type Plan Building in the Hoe-amsa Monastery site

Han, Jiman

(Visiting Researcher, 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Research Fellow, Japan-Korea Cultural Foundation)

Abstract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function and the setting characteristics of 日 type plan building ruins in the Hoe-amsa monastery site, that's renovated by Zen priest Na-ong(1320-76) in the later Goryeo Dynasty(918-1392), through the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China, Japan, and Goryeo in that time.

The ruins of 日type plan building, located in the east side of Buddha hall ruins, is the ruins of Jungryo(衆寮). It was called as Jeondanrim(旃檀林), and the name can be seen from the record(天寶山檜巖寺修造記) of Yi-saek(李穡, 1328-96). It's name and the composition of plan is very similar to the Jungryo of Chinese and Japanese Zen monastery in 13th-14thcentury. And from it, we can see that, the priest Na-ong tried to introduce institution of Chinese Zen monastery, which he experienced during the time of study in China.

But, the location of Jungryo in Hoe-amsa monastery is deferent from the Zen monastery of China and Japan, and it can be said as the setting characteristics of Hoe-amsa monastery in Goryeo Dynasty.

keywords : East Asia, Zen Monastery, Goryeo Dynasty(高麗), Zen Priest Na-ong(懶翁), Hoe-amsa Monastery(檜巖寺), the Ruins of 日Type Plan Building, Jungryo(衆寮), Jeondanrim(旃檀林)
